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11
Nov. 2018
Vol.6 No.11

- 추수감사절 예배
- 주안에라이프 종강식
- The King's Table
- 교육부 소식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밸리채플과 MP채플에서 20여명이 세례·입교·유아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양영, 이광영 기자>

11명의 아기들 유아세례 ‘축복 가득’

■ 세례식

지난 11월 14일(수요일/밸리채플)과 11월 16일(금요일/MP 채플), 두 채플 저녁 영성 예배시간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밸리채플에서는 2명의 세례와 2명의 입교 그리고 1명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으며, MP 채플에서는 4명에게 입교를 그리고 10명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최혁 담임목사의 집례로 시종 밝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세례식이 거행되었으며, 세례식을 마친후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축복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은 11명의 아이들 부모들께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3면에 계속> | 이광영 기자 |



■ 추수감사절 예배

풍성한 수확 · 축복의 삶 ‘Thanksgiving to God’

지난 1년 동안 늘 동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열심히 일 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영과 육을 채우는 결실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지난 11월 18일인 주일에 주안예교회의 양쪽 채플에서 동시에 드려졌다.

각 채플마다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 풍성하게 장식해놓은 과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씨앗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수확하게 되었음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빛깔을 발산하고 있었다.

또한 각 채플별로 권사회가 주축을 이루어서 성의껏 준비한, 칠면조를 비롯한 추수감사절 전통음식들은 맛과 멋 그리고 따뜻한



을 함께 나누어준 2018년 최고의 식사였고 해도 손색이 없을만큼 훌륭했다. 또 한해를 보내면서, 각자의 마음에 뿌려

진 감사의 씨앗들이,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결실로 거두어지게 되기를 소망해본다. | 오희경 기자 |

■ 임마누엘 성가대 송년모임

정성 다해 찬양한 한해 돌아보며 웃음으로 웃음꽃

11월 25일 오후 4시 벨리채플의 친교실에서는, 성가대원들의 한해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감사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33분의 성가대원들과 담임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총회와 더불어서 봉사국에서 마련 해주신 맛있는 식사와 웃음일까지, 찬양드릴 때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은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대원들끼리의 친목도 다지는 소중한 한 때를 장식했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예라이프 종강식

감사와 보람... 새학기에 다시 만나요

가을학기 주안예라이프 종강식이 11월 28일 본 교회에서 있었다. 종강식에서는 열화같은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최혁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목사님께서 16과목의 모든 강사진들과 주방팀 모두에게 감사를 드렸다.

뱅렛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식사가 끝났음에도 헤어지기 서운해 맥다방으로, 별다방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어르신들은 내년 봄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주안예교회와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 임용자 기자 |



EM · 한어청년부 추수감사절 ‘은혜의 밥상’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니이다, 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삼하 9:3, 13)

이 말씀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주안예교회 EM Logos 영어청년부와 KM Co-ramDeo 한어청년부가 “The King’s Table”이라는 밴킷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행사는 11월 24일 토요일 12시에 MP 채플에서 열렸고 약 40여명의 청

년들이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홀로 지내야하는 유학생들이나 가족이 없는 청년들에게 식사를 마려해주는 “밥상을 부탁해” 행사가 이번에는 두 청년부가 연합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 2달 전부터 EM과 KM의 리더들은 회의를 시작하였고, 팀을 나누어 세부사항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행사 당일, 이른 시간부터 모인 리더들은 청년부 방을 가을 분위기로 꾸미고, 식당에서는 ‘왕의 상’을 정성껏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11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세례식> 주중에배임에도 불구하고 세례와 입교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원근각처에서 오신 많은 분들은 꽃다발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보는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창립 이래로 이렇게 많은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11명이나 되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본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저들이 장성하여 주안예교회를 이끌어 갈 재목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주안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례, 입교, 유아세례 명단은 아래에 있습니다)

(벨리채플) 세례/ 박수진, 최희량, 허 Jenny, 윌리엄 오소리오, 제일린폰티아나, 입교/ 윤 caleb, 유아세례/ 박레아(박수진, 이우연)

(MP채플) 입교/ 구윤혜, 윤진근, 이조나단, 최은지 유아세례/계은영(Daniel Kye, Esther Kim), 김태영(Daniel Kim, Teresa Kim), 마에나(마성표, 은종인), 박서현(박동준, 박경민), 박지아(Sing Park, Nancy Cho), 안하준(안건우, 정지혜), 이베넷(이해진, 조우진), 정수아(정용재, 김메이), 한로운(한재호, 김예린), 한하영(Dai Han, Grace Kim).

■ 세례자 소감

"감사... 떨림... 결단"

박수진 성도: 예수님 영접한지 4개월, 박레아 아기는 태어난지 7개월만에 아빠와 딸이 같은 날, 같은 교회, 같은 목사님께 세례와 유아세례를 받게되니 올해 계속되는 겹경사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부터는 예배 우선순위, 말씀공부, 또 아기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최희량 성도: 3년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1년전 주안예교회 등록교인이 된 후 오늘 세례를 받게되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제니 성도: 7년전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오늘에서야 세례를 받게 됨을 감사드리며 1년전 주안예교회에 등록교인이되었고 특히 최혁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 교우동정

‘축하합니다~ 힘 내세요!’



박사론 전도사(벨리) 박사론 은퇴전도사님께서는 이스라엘, 요르단, 예루살렘 등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강가에서는 너무 감동이되었고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셨음을 고백 하셨습니다.



Angelina Lim(벨리) EM에 Angelina Lim(임천사) 자매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3주간동안 인디아 에서도 가장 하층 계급이며 90퍼센트 이상이 힌두교도인 반자라 바스티 지역으로 가서 수학과 성경을 가르칠 예정인데 작은 복음의 씨앗이라도 심겨지기를 소원하고 있으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였다. 임천사 자매는 임종구 집사님, 임용자 권사님 둘째딸이다.

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였다. 임천사 자매는 임종구 집사님, 임용자 권사님 둘째딸이다.

박예주 성도(MP EM) 지난 9월에 새내기 대학생이 된 박예주 학생은 평소애 사진찍기를 즐겨합니다. 고등학교 때에 사진찍기를 잘 배워 쌓아 온 실력을 지난 8월 멕시코 선교에서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교 클럽신문에서 일 년에 1500불의 장학금을 받으며 사진기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에 처음 일하여 받은 첫 열매 전부를 하나님께 심었는데, 이렇게 보상하시는 여호와 열매물러트의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박예주 학생이 찍은 사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진: 학교신문에 실린 박예주 성도가 찍은 사진)



구조셈 집사(MP) 금년 7월 24일에 실시된 가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가 지난 주말에 발표 되었는데 엠피채플의 구조셈 집사님이 당당히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검사로서 활동하며 공정한 법집행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가진 구 조셈 집사님은 그동안 LA의 한 현지 검사실에서 일을 하며 착실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부터 LA 채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구 집사님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후배 학생들의 귀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귀히 쓰시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항자 권사(벨리) 김항자 권사님이 11월 11일 모친상을 당하여 한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99세에 노환으로 조용하고 평화롭게 떠나셔서 남들은 호상이라고 위로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좀 더 효도하지 못한 후회와 불리도 대답 없는 아쉬움이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감사절을 맞으며 주님계신 따뜻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져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 주안에서 주님의 훈계로 늙어가면서 더 배우고, 감사하면서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 숨은 일꾼 / 정한경 성도(MP채플)

매주 MP채플의 예배를 찬양으로 준비하는 뮤직디렉터이자 악기팀에서 키보드로 섬기는 정한경 성도님을 숨은일꾼으로 소개합니다. 정한경 성도님은 교회음악에 있어 뛰어난 실력과 경험으로 매주 찬양을 편곡하여 주안예교회의 악보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숨은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MP채플 예배가 있는 금요일과 주일에는 일찍 교회에 나와 직접 준비해 온 곡을 찬양팀과 함께 연습하며 꼼꼼한 인도로 찬양 한 곡, 한 곡을 잘 인도하는 뮤직디렉터입니다. 주안예교회에 출석한지는 9개월로써 아직은 새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님 스스로가 잘 적응하여 자리매김을 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MP찬양팀을 이끌어 가는데 성도님의 무한한 능력 발휘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MP채플 예배가 되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박경숙 기자 |



‘정말 잘 하셨어요!’



박찬경 집사의 지도로 색소폰 모임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반부터 7시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명이 벨리채플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는데,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추수감사예배 중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김사빈 형제 평화봉사단 소속으로 동티모르에 파견되어 27개월간에 긴 봉사의 기간을 끝 마치고 12월 미국으로 귀국한다. 봉사과 헌신에 마음이 남다른 김사빈 형제를 축복한다. 또한 잘 훈련되어진 헌신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해 온 부모님은 김승환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이시다.

■ 숨은 일꾼 / 오병순 권사(벨리채플)

“울 엄마처럼 남을 배려하며 선하게 살고 싶다” 는 오병순 권사를 소개합니다. 1989년 주부 가요제에서 3등을 거두고 은상을 획득하고 인생을 즐기던 오병순 권사가 주님을 만난 후부터 숨은 일꾼이 되어 찬양사역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않고,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놀라운 주님의 참사랑을 경험했으며, 예배 때마다 기타연주로 예배를 돕고, 주안에 라이프에서 기타와 노래교실을 가르치고, 또 임마누엘 성가대 Alto 파트장으로서 밖에서도 대원들과의 연락과 간식 등을 챙기는 충성과..

감사절을 맞으며, 가족끼리 모여 앉

아서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해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심장이 기쁨과 감사로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듯이 권사님의 머리 속에 그려져있는 어머니의 선함과 헌신의 모습이, 인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일치함을 느낄 때 성령님의 은혜가 더 뜨겁게 역사하셔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려는 효녀의 믿음 위에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 김신실 기자 |

■ 새가족 소개 / 장웬디 성도(MP)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

안녕하세요. 9월달부터 주안에교회를 다니게 된 Wendy Jang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지



장웬디 성도
(MP 한어청년부)

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간은 불과 세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경집사님을 통하여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교회에 와서는 최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가족 교육을 받게되었고 그 안에서 민은영(민에스더) 권사님을 통하여서 제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주안에교회에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나 매일, 매순간 감동과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참 기쁨을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Coram Deo 한어청년부, 주안에 하나 목장모임을 통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최근 생활들 모두가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성경책을 보게 되었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제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뜻밖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저의 씨앗이 너무나도 작으나 이 작은 씨앗이 풍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날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 감사의 글

섬김의 기쁨, 풍성한 은혜의 사역



황영욱 국장(밸리채플 돌봄사역국) 지난 일년 동안 돌봄 사역을 감당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안예교회 식구중 연약한 자들을 음식으로 도우는 일이라서 주 부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기에 우리 돌봄 팀원 5명은 우리가 만든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속히 영육간에 건강을 찾으시기

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며,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즐겁고 기쁘게 한주 한주를 섬겼습니다. 또한 우리의 돌봄이, 작게나마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을 때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지요.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과 사랑이 힘든 환경에 처해진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면 봉사로 섬기셨던 돌봄팀원 모두에게도 같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백석원 국장(MP채플 주차국) MP채플로 이전을 한지도 어느새 1년이 되어 갑니다. 부족한 종을 천국가는 문의 문지기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 드리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양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차고 넘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봉사자들 여러 분 임집사, 이집사, 김집사, 백집사님 늘 강건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안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김경배 국장(주안에라이프 국장)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는 주신 말씀을 기억 합니다. 본교회와 타교회의 선배 교우님들과 학기 중에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부족함에는 격려를, 연약함에는 위로를, 불평보다는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성숙한 믿음을 배우며 감사했습니다. 악기, 취미, 체육, 교양에 걸친 16과목과 100여명의 등록 수강생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적잖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주안에 라이프”가 밸리지역 한인 교우님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봉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안예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운영과정도 하나님의 “주안예교회”를 향하신 뜻에 따라서 성장할 것을 확신하며 교회의 사역에 수강생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과, 재능 자원봉사로 수고해주신 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뒤에서 감당하는 식당 봉사자님들의 헌신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는 말씀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김진석 장로(밸리채플 새가족국) 주안예교회를 처음 찾는 모든 성도님들을 여호와 깨물로드 법칙을 따라 감사에 씨앗을 심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 섬겼을때 성도님들이 잘 정착하시는 것을 보며 풍성한 감사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착한 성도님들이 목장 공동체와 또, 다양한 능력을 따라 교회에 필요한 사역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적응해 나갈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새가족국에는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신 모든 국원들에게도 큰 위로와 감사드립니다.



김옥의 국장(MP채플 예배국) LA와 Fullerton 채플이 하나로 합하여 MP채플이 시작되며 예배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각자 다른 채플에서 섬겨왔던 방식의 약간의 차이로 인해 적응시간이 필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목적이기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되어 섬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팀장이신 이정순 집사님과 이길라 권사님의 섬세한 배려와 최선을 다하시는 섬김으로 예배국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늘 직장과 가정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열심히 섬기시는 윤재숙 집사님, 통역기를 맡아 전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한수현 집사님 모두 감사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 감사의 글

시련과 아픔도 축복의 열매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국을 섬겨왔지만, 혹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 오히려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지는 않았는지, 예배의 흐름을 막고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늘 조심스럽고 긴장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안예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현숙 국장(벨리채플 봉사국) 지난 1년간 봉사국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있게 느낀 것은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성도들 간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가끔 일이 너무 많아서 봉사국 봉사를 감자기 부탁하는 경우에도 마다하지 않고기꺼이 도와주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목자로서 시간에 쫓겨 목장 모임 시작과 준비가 늦어질때 마다 목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와 그리고 모든 봉사국 회원들이 우리 교우님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김정자 권사(벨리) 한창 꿈많은 대학시절 내 단짝친구가 미국유학길에 오르며 자기 과에서 제일 믿음직스럽다고 소개시켜준 분과 1968년 11월 12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김준의 장로입니다. 50년의 결혼생활동안 기쁨도 슬픔도 많았건만 가장 견디기 힘든 아픔은 딸의 병마였습니다. 콩팥이식을 해야하는 어려움 앞에서 아들과 사위는 서로 자기의 콩팥을 준다고 할 때 그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뿐만아니라 회복한 후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녀 딸 Ella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지는 것은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한다고 끔찍이도 속을 썩이더니 마음이 변하여 12월 1일에 결혼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켜보면 서로 잘났다고 고집을 피운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큰 베품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가정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하나님만을 잘 섬겨드리는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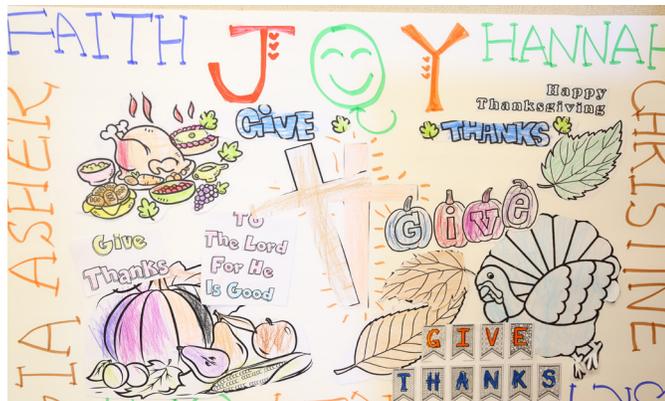
임용자 권사(벨리) 작년 10월에 있었던 힐링캠프에서 목사님께서서는 내년 10월 제1기한국힐링캠프를 하신다고 선포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하고 헌신의 약속을 하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때부터 큰 고민이 시작되었다. 가장 큰 환경의 요인은 올해 대학원서를 쓰고, 또 여러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가 꼭 있어야한다고 붙잡고, 늘어지는 딸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일을 해결할 수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엔 없다고 판단하고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기도 한달 후 평생 생각도 안해본 대학에서 꼭 원서를 넣어달라는 편지가 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하여 보냈더니 올 8월부터 대학에 다니라는 허락을 받게되어 16살의 어린나이에 USC대학안에 RHP Program에 다니게 되었고 현재 생화학을 전공하고 있다. 카이로스에 시간을 위하여 환경에 시간까지 뛰어넘게하신 하나님, 나같이 재주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없는 연약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주님의 아픔을 보게되었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박선우 집사(MP) 이번 한 해는 저희 가정에 많은 시련이 닥쳐왔었지만 말씀대로 기도하며... 인간의 생각과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하신 소중한 한 해를 보았습니다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황성남 성도(MP) 부족한 능력이지만 성가대의 지휘를 맡기시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일원이 되어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답답함도 있었겠지만 넉넉히 참아주시고 지켜봐 주신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로 구성 되었음에도 자식뻘 되는 저를 존중해 주시고, 매 주 성심을 다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성가대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 EM 홈커밍 예배

대학으로 떠났던 친구들 다시 모여 이야기 꽃



지난 9월 새내기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개중에는 교회를 잠시 떠나 지내다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집과 교회로 돌아 온 EM 학생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방학주년을 부모님들과 보내고 다시 각자의 대학으로 돌아가기 전, 25일 주일 오후에 EM 학생들을 MP채플로 초대했습니다.

두 채플에서 모인 35여명의 학생들이 담당 전도사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먼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밸리채플의 새가족육에서 준비해 주신 육즙이 살아있는 스테이크와 연어구이 정식에서 과일후식까지 아주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저녁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Hometown Church의 친구들과 웅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오손도손 나누는 이야기속에 활기가 넘치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Hometown Church에 가면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꿉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EM 학생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Hometown Church인 주안예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도록 우리 주안예교회를 잘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주안에 부모님들이 주안에서 심은 자녀의 씨앗이 주안에서 새싹으로 자라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11월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 갈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큰 나무들이 되어 맺은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꿈을 꾸며 주안에 EM을 사랑합니다.



| 박경숙 기자 |

■ ICY Lock-In

“야참 만들어 먹고 게임하며 우정 다졌어요”

지난 11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밸리채플 강당과 중고등부실에서 주안예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잠을 자며 활동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밸리와 엠피 학생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학생 40여명과 지도자 10명이 함께 참가 하였습니다.

야식나라(야식 만들어 먹기), 요가 불 피구, 형광 원반던지기 등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을 높이고 함께 잠을 자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처음으로 요리를 직접 해먹어보는 락인이어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수다를 떨면서 밤을 샌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리더들이 많은 수고를 해준 락인 이었습니다. 게임 활동도 많이 도와주었고 음식 재료 장보는 일도 모



두 리더들이 섬겨주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또 PSG 부모님들께서 맛있는 김치찌개와 스텝 반찬으로 학생들을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리, 처음 해보는 게임들이어서 다소 영성

해 보였을지 몰라도 학생들에게 만큼은 직접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뜻 깊은 시간들 이었다”고 김 민재 전도사님께서 이번 락인 행사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 나형철 기자 |

■ 목장 탐방/ 벨리체플 6목장

하나님의 영적군사, 훈련 받는 공동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3:6-7)

양태섭, 양영 집사님 부부의 섬김아래 모인 6(六)목장은, 지금은 ‘육(肉)’에 속해 있지만 하루하루 ‘영(靈)’으로 거듭나려 노력하는 목장입니다. 저희 목장의 예배 후 모임은 늘 한결같이 운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면 목원들 서로가 행여 육으로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복(福)된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새신자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젊은 부부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진솔한 고백들은 나머지 목원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도전과 거름이 되어 그 결과 예수님과 그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감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라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믿음의 가훈으로 삼고 계신 목자님의 집은 저희 6목장의 또 다른 영적인산꼭대기입니다. 목장 모임이 없을 때에는 이곳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때로는 주제를 정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등 주안의 교제의 또 다른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한달동안은 “결혼”을 주제로 책한권을 정하여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이며,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하나님의 관계가 각각 바로 서게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는 깨달음을 얻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캠핑과 낚시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



안의 귀한 섭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목원 개인들은 주안예교회 6목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다음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어가는 기도의 동역자들”, “육에서 영으로, 죄에서 믿음으로, 사랑안에 하나되어 함께 기도하는 목장”,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격려하며 힐링이 시작되는 신앙의 가족”, “어린영소와 사자가 함께있어도 해될도 없고 상함도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곳”,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임”, “목사님의 설교도 목장도 복인 그런 교회”, “블링블링 빛나는

모임”, “함께 애 통하고 기뻐하는 곳”, “하나님의 오른팔 같은 모임”, “사람의 마음을 낚는 어부가 목자인 푸른 바다와 같은 곳” 그렇습니다. 저희 목장은, 내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에 리액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려 노력하며, 수면 위의 문제에 끌려 대면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를 따르며,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늘 점검하며, 실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위해 말씀으로 깨어있고, 분별을 통해 육과 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무기를 준비하며, 말씀의 검을 들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물리적 장치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 받는 목장입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내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로 천사를 파송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일꾼 또한 육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길 원하는 목장입니다. 이런 저희의 목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아래 협력하여 점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호영 집사 |

■ 사역일지

잔잔한 배경음악같이 받은 사명 조용히 감당하기를



이미란 전도사

우리 주안예교회는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하는 주안예교회의 5년 반은 짧고도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뒤에서 밀어주셔서 씩씩하게 걸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다섯 살 만이면 뛰고 달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주안예교회도 이제 뛰고 달릴 수 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것은, 부족한 저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않을까하는 저의 부족함입니다. 아울러 최혁 담임목사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며, 많은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없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안예교회 뒤에서 잔잔히 흐르는 BGM(배경음악)과 같은 마음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안에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때로는 잔잔한 마음의 위로로, 때로는 원동력이 넘치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사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안에서 더욱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 주안에말씀 간증

'18주의 영적싸움, 말씀의 승리'

우상 숭배의 결론은 땅끝, 땅 모퉁이, 벼랑 끝이었습시다. 한발짝만 더 내디디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38년 전 예수님이 절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의 체질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은 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에게 양식이요, 길이요, 기쁨이며, 위로요, 힘이요, 소망이요, 답이었습시다. 그런 저에게 주안에 빛을 향한 주안에말씀은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시다.

그러면서도 18주를 2번 이상 빠지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1주일에 5일 일하고 또 화요일, 금요일 밤 늦게까지 쉬지 못하는 것은 무리라며 하루만 가라고 완강히 반대하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시다. 예배와 말씀!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 장애물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아무리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뜻 알기를 원했지만 내게 너무 강함이 있어 말씀과 충돌하고 있었습시다.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첫 통독훈련을 다녀왔습시다. 집에 오니 남편이 프리웨어에서 큰 차사고를 내고 차를 겨우 끌고 왔다고 본인 실수라고 겁에 질려 있었습시다. 아! 사탄의 공격이구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음을 알고 방해하러 왔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겠구나 확신이 왔습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시다. “몸 다치지 않게 지켜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네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거예요” 라고 듣거나 말거나 저는 고백했습시다. 정말 며칠 뒤 차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고치게 되었고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되어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시다.

하지만 금요일예배에는 나가지 못했습시다. 두번째 통독을 다녀온 다음 날인 수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니 13년 다니던 회사가 3일 뒤인 금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공문이 와있

었습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난리가 났습시다. 하지만 저는 너무 기뻐 화장실에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시다. “잘됐네. 그동안 고생 많았대이. 이제 좀 쉬거래이”, “고마워요. 당신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시간도 많고 피곤하지 않으니 화요일, 금요일 다 교회에 가도 되겠네요”, “물론이지!” 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습시다.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화요일, 금요일, 주일. 더 기다려졌고 오늘까지 왔습시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중 집에서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서 단어 하나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시다. 슬픔대신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는 말씀은 몇년 전 레마로 주셨었는데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은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만 같이 생소하게 신실하게 강하게 느껴졌습시다. 얼마나 기쁘는지 눈물이 났습시다. 자격없는 저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의가 되어 주셨음이 감격이요 또 하늘을 향하여 자라고 있는 멋지고 유익한 나무로 보여주심이 너무 멋있었습시다. 또 큰 보석을 주셨네요. 아버지!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시다. 그날도 100도가 넘어 혁혁하고 있는데 한 나무가 머리엔 수건을 쓰고 겨울 잠바에 노오란 담요를 쓰고 통독하러 들어왔습시다. 모두의 시선이 고정되고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시다. 13번째 키모테라피를 하루 종일 받고



병원에서 집으로 가지않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8번째 통독 시간이었습니다.

머리도 없고 얼굴색은 까맣고 입술은 하얗고. 그래도 구김살 없이 활짝 웃는 얼굴에는 천사의 미소가 있었습시다. 모두 말은 많했지만 한 마음이 되어 눈물로 기도했습시다. “생명의 주인되신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의의 나무를 꼭 살려주셔서 18주 완주하게 해주시고 주안에빛에서도 만나 함께 은혜받게 하주세요.” 정말 자매님은 얼굴빛이 날로 날로 좋아지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18주를 완주했습시다.

18주를 지내며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시다. 또한 주목사님, 전정자 권사님, 반장님. 테이블 식구들. 대화는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의의 나무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쁨이었습시다.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나도 조용히 고백하여 봅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이중진 집사(MP)

■ 교우비즈니스 안내

SEONG UN JOE

VIIA TRAFFIC SCHOOL 비자운전학교

213-739-8181

vijasj@gmail.com

4157 W. 5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JINNYY NOH PIANO STUDIO

노현순 피아노 개인 지도
(818) 438-9359/ jinnynoh1@gmail.com

Member of MTAC(Music Teacher Association of California) & SYMF(Southern California Youth Music Festival)

Master Car Auto Body Shop

Danny Lee (이원근)

5801 S. Central Ave #H
Los Angeles, CA 90011

wonkni@gmail.com
(213) 703 - 0777

보험수리, 리스리턴,
렌트카, 도잉 서비스



■ 남가주 Mission의 기원과 역사(1)

해안 따라 21개 미션... 250년 캘리포니아 역사 고스란히

건국 이후 역사가 길지 않은 미국에 살면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들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중 한 장소가 미국 서부에서 기독교를 처음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Mission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San Fernando Mission도 있듯이 쉽게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이 Mission의 역사와 그 자취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769-1833년 사이에 총 21개가 세워진 남가주 Mission은 캘리포니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Mission들이 자리잡혀 있는 도로는 Freeway 101번 도로 로써 그 당시에는 El Camino Real(The Royal Road, 왕실 가도)이라 불리워 졌는데 그 이름은 미대륙으로의 세력 확장을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자한 스페인 왕조를 위해 불리워진 이름입니다.

처음 이 길을 다진 Gaspar de Portola 장군은 San Diego에서 시작하여 그를 따르던 많은 군사들과 이권을 노린 개척자들 그리고 교회 전도자들과 함께 거친 자연환경의 땅들을 다지며 정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군사들을 동행 하였던 전도자들에 의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이 길을 통행하던 많은 여행자들에 의해 시설들이 이용 되어 지게 되면서 Mission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 이용되어졌던 이 도로 주변에는 동으로 제작된 종(Bell)이 설치가 되면서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이들에게 El Camino Real, 즉 왕실가도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이 101번 고속도로를 지나라하면 당시 종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종들이 주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Mission의 본래 목적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언들의 기독교로의 전도와 스페

인 왕권의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멕시코를 정복하고 있었던 스페인 왕조는 이후 캘리포니아 정복에 나서게 되는데 이를 위해 스페인 왕조는 군대와 함께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 수도사들은 파견하게되며 그중 한사람이었던 Junipero Serra에 의해 첫 번째 Mission이 San Diego에 세워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현지 인디언들의 거친 저항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점차적인 그들의 전도와 교육을 통해 그들을 회유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졌던 인디언들은 이후 Mission을 떠나서 그들의 이전 정착지에서 다시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그 주변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면 이미 만들어진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Mission을 세우는 방법으로 많은 새로운 Mission들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Mission 내에서 생활은 각자 맡은 부분의 노동을 하며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는 등의 일을 통해 자급자족을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모든 소유를 공유화하며 모든 이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망시에는 한 장소에 매장하는 공동묘지도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 처음으로 들여온 과일들 중 사과, 복숭아 등이 남가주에서 첫 수확을 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한 이후 당시 멕시코 정부의 관리

하에 있었던 Mission은 본래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후에는 Mission들이 위치한 지역들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서 미국과 멕시코와의 전쟁 때 미국의 군사기지로

이용 되어지기도 하였으나 1850년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하나의 주로 선포 되면서 링컨대통령에 의해 Mission들 중 일부는 카톨릭 교회의 소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독교의 전도와 발전된 문화의 전파, 그리고 미개했던 현지인들의 교육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Mission은 그러나 당시 현지 인디언들을 조직적으로 노예화 하는 억압의 도구가 되었으며 유럽 대륙으로부터 옮겨진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전 약 300,000명까지 달했던 현지 인디언 인구가 1834년에는 불과 20,000명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은 부정적인 측면을 비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많은 Mission 중 우리 교회 가까이 Rinaldi 길에 샌퍼넌도 벨리에 위치한 San Fernando Mission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Mission은 정확히 San Fernando Rey de Espana (스페인의 왕, 성 페르난도) 라는 이름의 Mission입니다. 이 Mission은 1797년 Lassen 신부에 의해 1797년에 세워졌으며 이 이름은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Fernando 3세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Mission의 초기 목적은 지나가던 여행객 중에 불치의 사고나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이들을 치료하며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던 장소로 이용되어졌던 곳입니다. 현재는 교회와 학교 그리고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당 내부에는 300년전 스페인에서 옮겨온 성 Fernando 조각을 볼 수 있고 정원에는 꽃모양 조각의 분수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노재덕 집사(벨리)

<3면서 계속·The King's Table> 청년들은 ICY 룸에 모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성우 전도사님께서서는 “주안에 InChrist”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영어와 한어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부 순서로 청년부 방에 모여서 왕의 육접반

상을 대접받고 EM과 KM이 섞여 앉아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답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벨리, MP채플의 모든 청년들이 한 곳에 모이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명절에 온 식구가 모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부 순서로 다양한 게임을 하며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이성우 전도사님의 기도

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을 배려하여 생필품을 선물로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행사가 잘 마쳐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한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안에 가족을 소개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봉사와 헌신

2010년도 전 교회에서 담임하셨던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고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했던 영혼을 쫓개는 말씀에 감동과 눈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날부터 최목사님의 말씀을 못 듣게되니 늘 허전하고 갑갑한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민유선 집사님으로부터 최목사님께서 집 근처로 채플을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안에교회를 꼭 같이 다니자는 민집사님의 권유로 다시 최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은 제 생애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사막을 한참 헤매이던 제 영혼이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모든 갈증과 갈급함이 채워지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이 토대가 되어 충실한 '기도자'로 든든하게 서서 2019년에는 어떤 자리이던지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조성은 집사(MP)

5목장에 합류하여 목자이신 이광영 집사님과 임혜신 권사님, 이하 여러 목원들과 '희노애락'을 나누며 너무 행복한 목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혜신 권사님께서 친언니처럼 살갑게 대해 주시고, 밑반찬이며 깍두기도 담아 주시면서 모든 목원들을 한 집안 식구처럼 헌신적으로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목자님의 섬김을 따라 앞으로 '주안에교회'에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들에게 '주안에교회'가 우리교회 되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마음에 점점 다가온 그 십자가

우리의 삶에 "처음"이라는 단어는 많은 설레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1년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주안예교회 건너편 등산로를 다니며 어느날부터 저의 눈과 마음에 교회 건물의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유승임 집사(벨리)

교회를 한번 들어가볼까 하면서도 선험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세달전쯤에 최혁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주안에교회 교인의 권고를 들었고... LA에서 타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께서 최혁 목사님 설교를 몇번 다녀가고 저에게 좋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같은 동네에 있으니 다녀보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11월 4일 저는 처음으로 주안에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날의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한 말씀마다 가슴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외면하고 살아온 저를 반성하는 새로운 세계의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만져보게된 성경책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라 권사님께서 두번 째 교회 참석 때 선물로 주셔서 제 평생 기억되는 소중한 성경책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긴장하고 홀로 처음 가본 교회 첫날... 편안하게 맞이해 주던 새가족부 임원께 감사드리고... 밖에서 보면 교회의 분위기 좋아서 걸음을 옮겼지만 첫날부터 저에게 낯설음없이 다가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교회 임원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저는 오늘도 설레입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 주일 예배**
벨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벨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 새벽 예배**
벨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벨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9:30
- Coram Deo(한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 벨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안에” 2018년 1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박희정, 이광영, 이에스터, 임용자, 조성은, 조용대(기자)
양영, 남성우, 정인섭(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